# 혁신도시 공기업·공무원 가는 길 … "취업은 역시 동신대"

'DS Star' 학생 육성 프로그램 등 취업사관학교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

## 동신대학교

### 취업률 70% 2년 연속 돌파 … 광주·전남 일반대학 중 유일
### 지난해 혁신도시 13명 취업·'공무원 사관학교' 명성도
### 27일까지 2020 신입생 추가모집… 전원 장학금 지급 혜택

동신대학교가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으로 취업률 마의 70%대를 돌파하며, 취업 명문대학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동신대에 따르면 2020년 교육부가 발표한 동신대의 2018년 12월31일 기준 취업률은 70.4%다. 이번 취업률은 2018년 2월과 2017년 8월 졸업생들의 취업 현황이 반영됐으며,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취업률 중 가장 최근 자료이다.

70.4%는 졸업생 1000명 이상 광주·전남 일반 대학 중 가장 높은 취업률로서, 동신대는 2017년 70.9%에 이어 2년 연속 취업률 70%대를 넘겼다. 2년 연속 취업률 70%대를 넘긴 대학은 광주·전남 일반 대학(졸업생 1000명 이상) 중 동신대가 유일하다.

또한 동신대는 2009년~2018년까지 최근 10년 중 8년 동안 취업률 1위 자리를 차지하며 '취업 절대 강자'의 위상을 다지고 있다. 졸업생들이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했는지를 나타내는 '유지취업률'(1차 기준)도 최근 3년 연속 90%대를 유지하고 있다.

◇2019 혁신도시 공기업 13명 정규직 합격

취업률의 질적인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동신대는 2019년 한해 동안 한전 등 광주·전남혁신도시 공기업에 13명의 재학생·졸업생을 취업시키며 '혁신도시 중심 대학'의 면모를 과시했다. 기업별로는 한국전력공사 3명, 한전KDN 7명, 한전KPS 2명, 한국인터넷진흥원 1명이 정규직으로 취업했다.

광주·전남혁신도시 공기업 취업 특별반과 IPP장기현장실습, 에너지융합대학 등을 통해 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대학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이다. 특히 광주·전남혁신도시와 에너지밸리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에너지융합대학의 최근 성과가 눈부시다.

전기공학 전공의 경우 지난 2017년~2019년 3년 동안 한국전력에 무려 7명을 신규 및 경력직으로 취업시켰다.

에너지융합대학은 혁신도시 내에 구축한 에너지클러스터를 올해부터 미래 에너지 신산업 인재들을 위한 현장 실습 교육 공간으로 활용, 맞춤형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동신대는 혁신도시 공기업들이 전체 채용 인원 중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뽑아야하는 올해 이후부터 더 좋은 취업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무원 사관학교 명성 재확인

동신대는 공무원 사관학교로서의 명성도 재확인했다.

광주·전남지역 최초의 상담심리학과인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는 2020년 전문상담교사 임용시험에서 학과 설립 후 가장 많은 9명의 합격자를 배출해 화제를 모았다. 2018년 3명, 2019년 5명, 2020년 9명으로 해마다 합격자가 급증해 재학생들의 자신감도 높아지고 있다.

유아교육학과는 2019학년도 국공립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에서 2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2015년 2명 ▲2016년 1명 ▲2017년 1명 ▲2018년 2명 등 매년 꾸준히 합격자를 양성하고 있다.

동신대 소방행정학과는 2019년 소방공무원 시험에서 현재까지 12명의 합격생을 배출하는 등 매년 10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다.

경찰행정학과도 2019년 경찰공무원 시험에서 8명의 졸업생과 재학생이 합격한 것으로 파악했다. 학과 개설 이후 배출한 경찰공무원은 모두 283명으로, 이들은 전국 각지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군사학과는 올해 2월 졸업한 27명 전원이 7급 공무원 수준인 소위로 임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남도 토목기술직 공무원, 광주시, 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공무원 시험에서도 합격자가 나오고 있다.

동신대는 올해부터 'DS Star' 학생 육성 프로그램과 '대정 프로그램' 등 취업사관학교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혁신도시 공기업 취업과 공무원 취업 등 취업의 양적·질적 수준을 더욱 높일 방침이다.

동신대 최일 총장은 "모든 교직원들의 정성과 학생들의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7일까지 2020 신입생 추가 모집

동신대학교는 오는 27일까지 온라인과 방문 접수를 통해 2020학년도 신입생을 추가 모집한다. 추가 모집 합격자 전원에게는 최소 100만원에서 수업료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이외에 재학 중 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 장학금(최대 150만원), 학과별 면학장학금, 희망 장학금, 국가 장학금, 사업단 장학금을 비롯해 대학 홍보대사와 블로그 기자단, 입학 서포터즈, 취업 서포터즈 활동 장학금 등이 마련돼 있다.

또한 동신대 스타 학생을 육성하는 DS Star, 대정 프로그램 등 취업사관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학업 성과에 따라 연최대 500만원의 장학금(중복 수혜 가능)을 받을 수 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조선대학교 전기 졸업생 4046명 배출

### 학위수여식 취소
### 민영돈 총장·단과대 학장
### '축하메시지 동영상' 제작

조선대학교가 2019학년도 전기 졸업생 4046명을 배출했다.

24일 조선대학교(총장 민영돈)에 따르면 2019학년도 학사 3538명, 석사 453명, 박사 55명이 졸업했다.

조선대학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학위수여식(졸업식)을 취소하는 대신 기념촬영을 위한 학사복과 학사모 대여 및 포토존을 운영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커지면서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이마저도 전면 취소했다.

하지만 조선대학교는 민영돈 총장과 단과대학 학장들의 졸업 축하 메시지를 담은 동영상을 제작해 공식 홈페이지에 업로드 했다.

민영돈 총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안타깝게도 학위수여식은 취소됐지만, 4년간 학업의 결실로 영광스러운 졸업을 맞이하신 졸업생들께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사회에 진출해 자랑스러운 조선대학교를 널리 알리는 큰 인재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대학별 추가모집 지난해보다 약 2400명 늘어날 듯

2020학년도 대학 입시 마지막 관문인 대학별 추가모집 인원이 지난해보다 약 24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복수지원 제한이 없는 전형이라 경쟁률에 거품이 있을 수 있으니 모집인원을 살펴서 지원하라고 조언한다.

교육 정보업체 진학사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료를 인용해 2020학년도 대입 추가모집은 전년 대비 2393명 더 뽑고 모집대학은 3곳 줄었다고 분석했다. 올해 전국 162개 대학에서 총 9830명을 뽑는다.

진학사는 지난해 추가모집을 하지 않던 대학에 지원이 몰릴 것으로 내다봤다.

의·치·한의예과 중 정원을 못 채워 추가로 모집하는 대학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했다.

의예과는 원광대가 2명을, 건양대·계명대·고신대·동국대·연세대(원주 미래캠)·영남대·인하대·제주대가 각 1명씩 선발한다. 치의예과는 조선대가 2명, 부산대·원광대가 각 1명을 모집한다. 한의예과는 상지대 2명이다.

대부분 대학은 수능 일반전형으로 학생들을 뽑는다. 다만 신경대, 영산대, 우석대(간호·한약학·한의예과 제외)는 학생부만 갖고 학생을 선발한다.

추가모집은 올해 수시 또는 정시모집에서 합격하지 않은 사람, 정시 합격자 중 등록한 적이 없으면 지원할 수 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지스트 지구·환경공학부
## BK21플러스 종합평가 '우수사업단' 선정

광주과학기술원 지구·환경공학부(학부장 이재영 교수)의 지속가능 미래환경을 위한 융합기술개발 인재양성 사업단이 2019년도 BK21플러스 종합평가에서 우수사업단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65개 대학 525개 사업단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사업 신청 시 제시한 사업 목표 대비 달성도 평가 및 지난 6년간 주요성과의 양적·질적 수준, 대표 사례의 우수성 등을 종합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실시됐다.

평가 주체인 한국연구재단 측은 지스트 지구·환경공학부의 사업 비전 수립의 체계성, 국제화 성과 우수성 및 참여교수의 연구역량 등을 높게 평가하여 300점 만점중 278점으로 '매우 우수' 등급을 부여했다.

지구·환경공학부 사업단은 사업 기간(2013년 9월~2019년 8월) 동안 유수의 해외 대학(18개국 31개 대학)과 MOU 체결 및 연구자 교류를 통한 국제화 성과에 두각을 나타냈으며, 국제환경연구소(IERI), 글로벌 담수화 연구센터 등을 운영하며 미래 선도적 환경 융합기술 연구를 주도해 왔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G.O.Auction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광주 전남 전북
200베드 이상 요양병원 매도·매수
광주 · 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 · 임대 · 급매 전문/ 경 · 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